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송상홍

2004년 8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4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송 상 홍



송상홍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송 상 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문제2: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문제3: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2학년 등 모두 414명을 무선유층 표집,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중 설문지의 1부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폐쇄형을 요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고 2부는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인지, 정서, 상호공유, 행동적 친밀감을 요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w-way ANOVA)을 통하여 가설검정하였고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Tukey의 다중비교(TMC)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이는 종속표본 t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님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alpha=.05$ 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중 아버지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 여학생의 어머니가 더 개방형 의사소통을, 남학생의 어머니가 더 폐쇄형 의사소통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가 초등학교일 수록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다가 고등학교로 갈수록 폐쇄형 의사소통형태로 변하고 있다.

셋째, 학교급별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초등학생이 부모에 대해 친밀감을 높게 느끼고 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은 낮아지고 있다.

넷째,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친밀감을 높게 느끼지만, 자녀가 성장할 수록 부모는 폐쇄형 의사소통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친밀감을 낮다.

다섯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상관관계에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높으나,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폐쇄형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낮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폐쇄적이다.

둘째,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 대해 친밀감을 높게 느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다.

셋째, 부모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해 친밀감을 높게 느끼나, 폐쇄형 의사소통을 취하는 경우, 친밀감은 낮게 느낀다.

넷째,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도 높으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폐쇄형 의사소통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도 떨어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5
2. 친밀감 개념 및 구성요소	12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친밀감과의 관계	1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3
1. 연구대상	23
2. 측정도구	23
3. 자료처리	2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7
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27
2. 자녀의 친밀감	31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35
V. 요약, 결론 및 제언	40
1. 요약	40
2. 결론	44
3. 제언	45
참고문헌	46
Abstract	52
부록	54

표 목차

<표Ⅱ-1> 의사소통 양식의 분류.....	11
<표Ⅲ-1> 연구 대상자의 학교급별 성별 분포.....	23
<표Ⅲ-2> 부모의 의사소통 검사지 문항구성.....	24
<표Ⅲ-3>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	25
<표Ⅲ-4> 친밀감 검사지 문항구성.....	25
<표Ⅲ-5>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	26
<표Ⅳ-1>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27
<표Ⅳ-2>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28
<표Ⅳ-3>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29
<표Ⅳ-4> 학교급별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30
<표Ⅳ-5>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31
<표Ⅳ-6>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32
<표Ⅳ-7>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33
<표Ⅳ-8> 학교급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34
<표Ⅳ-9> 요인별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의 관계.....	35
<표Ⅳ-10> 성별, 요인별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의 관계.....	37
<표Ⅳ-11> 학교급별 요인별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의 전체관계.....	38

그림 목차

[그림 IV-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3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며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때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자녀 부모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하여 유대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애정적 결속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녀의 성격발달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매개체인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즉 부모와 자녀간의 따뜻한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화 및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ienvenu와 McClain(1970)는 원활한 의사소통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느낌이나 의미를 상대방과 교환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밀접한 인간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선택하는 인간의 수단이라고 말하였다(송여옥, 2002, 재인용).

타인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대인관계의 기본능력은 영유아기에서부터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밀감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친밀감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정서이며 이는 영유아기의 중요한 타인인 가족을 기본으로 하여 길러진다. 하지만 오늘날 입시위주의 한국의 교육현실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쟁사회로 내몰리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밀접했던 부모 자녀의 관계는 지시, 감독과 이를 피하여 자기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녀의 도피 내지 회피가 반복되는 소원한 가족관계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따른 심리 특성상 또래집단과의 의사소통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서, 가족간 의사소통유형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시, 명령, 재촉하는 의사소통형태로 바뀌게 되고 친밀했던 유년기의 가족 관계는 점차 멀어지는 관계로 변해 버리고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의사소통의 내용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은 개인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의 공유와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 등을 깊이 있게 표현할 때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자녀의 사고, 가치, 관심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써 의사소통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친밀감 내지 친밀도는 두 사람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인정, 신뢰함으로써 자기노출이 이루어지는 안정되고 자발적인 상태로 발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에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동시에 서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나 감정에 있어서까지 기꺼이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상호작용 방식이다.

Waring, Schaefer 그리고 Fry(1994)는 친밀감이 결여될 경우 그것이 신체적 증상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며 또한 Pruit, Kappius 그리고 Gormman(1992)도 친밀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처럼 친밀감은 인간이 요구하는 기본적 정서의 하나이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많은 요인중에서도 자아 존중감, 자아분화, 일치된 가치관 등을 비롯하여 의사소통은 친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미라, 2001,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방식을 개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의 연구목적에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3.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4.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5.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성별에 따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6.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연령에 따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해 설문지 조사로 국한하였으므로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측면에 한해서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친밀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친밀감과의 관계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 개념 및 유형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공유), 혹은 Comunicare(공동체)라는 의미로서, 마음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더불어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전달’, ‘의사소통’으로 해석하고 있다(유영주, 1998).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 Bienvenu와 McClain(1970)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나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감정과 의미들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Satir(1972)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써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으며, Rice와 Tucker(1976)은 의사소통은 사람 사이의 감정, 태도, 사실, 신념 그리고 사상의 전달과정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의 느낌과 의미를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Paolucci, Hall 그리고 Axinn(1977)은 의사소통을 가족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을 창조하는 정보체계, 모방된 교환물로서 의사결정

과정수행상 필요하다고 했다(김오남, 1994, 재인용).

고영복(1977)은 의사소통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경험의 공유에 의한 소속감을 얻고,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에 의한 안정감을 획득하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한 정서적 안정 혹은 만족, 필요한 정보입수, 기분전환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남희, 2000, 재인용).

Gross 와 Knoll(1980)은 의사소통을 개인 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 및 행동으로 보았다.

차배근(1985)은 의사소통은 상징적인 상호교류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징이란 언어적인 행동과 얼굴 표정, 눈맞춤, 몸짓, 움직임, 자세, 외모, 그리고 공간적 거리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상호 교류과정은 의사소통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 상호 작용하는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김양희(1989)는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유영주(1998)는 의사소통은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였고, 박연호(1999)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정의에서 보듯이 의사소통원(source)에 비중을 둘 경우 의사소통은 메시지의 산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체에 비중을 둔다면 의사소통이란 신호의 전달로, 수용자에게 비중을 둔다면 의미의 공유로, 효과라는 요소에 비중을 둔다면 의사소통이 수용자로부터의 반응 야기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신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즉 인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일정한 수단을 통하여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에 관한 것으로 본다.

2) 의사소통유형

Galvin 과 Brommel(1986)은 의사소통과정이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형된 의사소통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양숙, 1995, 재인용).

Satir(1972)는 의사소통을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언어적인 면의 말과 비언어적인 면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숨쉬는 속도, 음정 등과 내면적인 감정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의사소통이란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두 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외현적 수준인 의사소통으로 문자적인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의사소통(meta communication)의 수준으로 의사소통의 문자적인 내용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즉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로 메시지가 갖는 태도나 말하는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태도나 감정, 의도 등을 나타낸다. Satir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의사소통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수경, 2001, 재인용).

일치형 의사소통은 진실된 자기표현이 허용되어 상이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성숙케 하는 유형이다.

회유형은 자신의 의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려고 애쓰는 유형이고, 비난형은 지배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유형, 평가형은 모든 일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유형, 혼란형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욕구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웃음을 지어냄으로써 거부당하지 않으려 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대부분이 낮은 자기 가치의 감정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회피하며 그들 자신은 진정한 감정을 숨기거나,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형태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모르는 경우이다.

이러한 Satir의 이론에서 시사하는 점은 자기감정의 솔직한 표현도 기능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의사소통유형은 학습된 산물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재학습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Gordon(1975)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나-메세지(I-Message)와 너-메세지(You-Message)로 구분하였다. 나-메세지(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과 느낌을 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멧세지이며, 반면에 너-메세지(You-Message)는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써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가 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라는 식의 해석을 하게 하는 영향을 주는 멧세지이다.

의사소통유형을 보완적 상호교류(Complementary transaction), 교차적 상호교류(Crossed transaction), 잠재적 상호교류(Latent transaction)로 분류한 Berne(1964)은 의사거래분석을 통하여 서로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완적 상호교류(Complementary transaction)란 양자간 심리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이고, 교차적 상호교류(Crossed transaction)는 예상 이외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기대에 맞지 않는 반응이 교차할 때 보여 지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두 사람 관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며, 잠재적 상호교류(Latent transaction)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교류를 말한다.

Gibb(1961)는 의사소통의 기능성에 따라 지지적 의사소통과 방어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했으며 전자는 성실한 정보 추구, 정보제공, 자발적인 문제해결, 감정이입이 되는 이해, 대등함 등이 순기능적이며 편견적인 독단 및 통제, 무관심, 우월감 등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Norton(1978)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세분화하여 조용하고 긴장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말하는 긴장이완형(relaxed), 자아 노출이 잘 이루어지고 마음을 잘 표현하는 개방형(open), 연극하듯 말하며 과장하기를 즐기는 표현형(animated),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며 감정이입을 잘하는 감정이입형(attentive), 친밀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친밀형(friendly)등으로 세분하였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가로막는 지배형(dominant), 논쟁을 빈번하게 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논쟁형(contention)등으로 나누었다.

Coleman(1992)은 상보적(complementary), 관례적(conventional), 탐색적(speculative), 통제적(controlling), 접촉적(contactful)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하였다(김혜정, 2001, 재인용).

상보형은 의사소통이 상보적인 부부는 배우자를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으로 어느 한 편이 이야기하면 다른 한 편을 귀를 기울이나 서로 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경청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이다. 관례형은 실제적 문제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일기에 대한 이야기와 같

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대화로 일관하며 각자의 자기노출을 최소화하는 유형이다. 탐색형은 개인적인 감정의 노출보다는 사실과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분석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아이디어나 잠정적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경청하는 관계의 의사소통유형이다. 통제형은 파트너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기위해 설득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유형이다. 이 유형은 두 사람 중 의견을 제시하는 편의 자기노출은 많으나 상대방의 신념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접촉형은 서로 아이디어와 감정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서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형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높은 정도의 자기노출을 포함한다.

Hawkins(1977)는 부부간 의사소통 연구에서 의사소통 유형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공유와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 등의 표현을 향상시키거나 억제하는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의사소통형태를 언어화의 정도와 감정노출의 정도라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친숙형(Contactful style), 분석형(speculative style), 억제형(Controlling Style), 차단형(Conventional style)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친숙형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어화하고 감정적인 노출이 많은 유형이다. 분석형은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자신의 신념, 생각 등을 명백하게 언어화하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지만 감정 노출정도는 낮은 유형이다. 억제형은 상호간의 의미탐색에 대하여 폐쇄적이어서 내적 상태를 분명하게 언어화하는 것은 피하지만 감정상태는 언어 이외의 단서들을 통하여 많이 노출하는 유형이다. 차단형은 문제를 피하거나 숨김으로써 명백하게 언어화하지도 않고 감정노출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중 차단형, 억제형은 폐쇄형으로, 분석형, 친숙형은 개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 1 > 의사소통 양식의 분류

언어화의 정도 ↓ 감정표출의 정도	폐쇄형	개방형
낮은 감정 표출	차단형	분석형
높은 감정 표출	억제형	친숙형

Barns 와 Olson(1985)은 의사소통유형을 가족간의 응집성과 적응성 기준에 근거하여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이 구분한 의사소통유형 중 개방형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순환모형(circumf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유형이고, 폐쇄형은 이를 방해하는 의사소통유형이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폐쇄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스러우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며, 활기 있고 자발적, 온정적, 긍정적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대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런 유형을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서로 휘방하는 것, 투사하는 것, 거의 관계하지 않는 것, 고집스럽고 의미 없으며 불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을 폐쇄형 의사소통이라 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중 개방형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

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에 유용하고, 폐쇄형은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에 용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Hawkins(1977), Barns 그리고 Olson(1985)의 분류에 따라 의사소통유형을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을 개방형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폐쇄형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려고 한다.

2. 친밀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친밀감 개념

대인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만족도, 적응, 친밀감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고 이 중 친밀감 개념이 서로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다(Clark & Reis, 1988).

친밀감(intimacy)이란 라틴어의 내부(inner) 혹은 내부 가장 깊숙한(inner most)의 뜻을 지닌 intimus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만약 누군가 상대방의 내면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그는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특징인 intimus를 파악한 것이며, 누군가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를 경험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본질적인 깊이를 지켜보고서, 상대방을 깊이 내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백보령, 1994, 재인용).

Erikson(1963, 1968)은 심리사회적(psychosocial)측면에서 성격발달을 구분, 설명하면서 발달단계 중 여섯 번째 단계인 성인전기에는 친밀감(intimacy)을 형성하기 위한 욕구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서, 친밀감(intimacy)이란 친밀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정신적이

며, 지원적이고, 부드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인지적 측면에서 친밀감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Waring(1994)은 친밀감이란 사적인 경험의 교환에 기초하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포함하고, 상호성(mutuality)과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에 수반되는 긍정적 연계과정이라 정의하였다(김혜정, 2001, 재인용).

Gilbert(1976) 와 Derlega(1984)는 자기노출과 친밀감을 연관시켰는데, 친밀감은 두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교환의 정도로 이것은 관계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은 한 개인의 개방성, 방어결핍, 공유하기, 상호관심 가지기, 감수성 및 관용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친밀감이 형성된 사람은 안정성, 사교성, 온정 등을 많이 가진 특성이 있으나 고립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온정과 자발성이 결여된 형식적이고, 판에 박힌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2001, 김혜정, 재인용).

이런 친밀감을 Erikson(1963,1968)과 Stone(1975) 등은 개인이 획득해야 할 성격요소로 보았고, Waring 과 Gilbert(1984) 등은 대인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았는데 Newman 과 Newman(1975)이 지적했듯이 친밀감이란 자아정체감과 달리 혼자서 형성할 수 있는 성격요소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형성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성격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은 상호보완적으로 친밀감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김미라, 2001, 재인용).

친밀감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복합적 상위의 개념(Moss & Schwebk, 1993)으로써 세 가지 다른 입장에서 애정이나 헌신과 같은 개념들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Wynne, 1984 ; 이경희, 1998, 재인용).

첫째, 행동이나 행위의 한 특성으로서의 친밀감 개념 정의는 친밀감의 개념을 행동적인 한 특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 이러한 예로는 친밀감을 신체적 접촉, 성적 욕구, 동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친밀감 개념의 이해는 종종 친밀감을 신체적 접촉의 욕구나 성적 욕구라는 협소한 의미를 갖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으로서의 친밀감은 Erikson이 그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기의 기본적 욕구로 언급한 친밀감이다. 그는 친밀감이란 친밀하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이며 부드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Erikson, 1963 ; 이경희, 1998, 재인용).

셋째, 성격의 한 측면으로서의 친밀감 개념은 친밀감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상호작용의 부산물로서의 친밀감 개념보다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친밀감을 심리적 구성체로 인식하는데 동의하는 학자들 간에도 친밀감의 구체적 정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친밀감이 상호성에 주안점을 둔 Hatfield(1984)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로 가까워지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Reis & Shaver(1988)는 두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배려 받았다고 느낌을 갖게 된 결과 자신의 중요한 개인적 감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oss 와 Schwebel(1993)은 친밀감이란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보듯 친밀감을 심리적 공동 구성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학자들은 두 사람의 상호 인정과 지지, 인지, 감정, 행동이 상호 공유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또한 친밀감(intimacy)은 간결하게 정의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개념으로 기존의 친족연구에서 주관적 유대관계로 사용되어온 이해, 신뢰, 존경, 애정, 좋아함, 상대방의 생각과 비판에 대한 수용심, 만족도 및 결속감 등의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내적인 사상과 감정을 전달받으며 특별한 공감과 상

호 협조감을 느끼게 되는 특별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Walker & Thompson, ; 1985, 전길량, 1993 ; 이금남, 2001, 재인용).

이상의 여러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친밀감이란 온화하고 친근한 느낌을 갖고 타인과 가깝게 지내길 시도하려는 성향이며,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 욕구라 이야기할 수 있다.

2) 친밀감의 구성요소

Erikson(1963), Whitbourne 그리고 Weinstock(1979)등은 친밀감은 개방성(openness), 근접성(closeness),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Orlofsky, Marcia 그리고 Lesser(1973)등은 친밀감(intimacy)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협동성(cooperativeness), 근접성(closeness), 상호성(mutuality), 개인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및 가장 친한 이성과의 성숙된 성관계를 들고 이들의 깊이와 관여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친밀감 상태 집단(intimacy statuses group)으로 분류하는 조직을 개발하였다(이경희, 2001, 재인용). 이들이 분류한 상태(status)는 6가지 단계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감(Intimate)의 단계로서 협동성, 근접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 가장 친한 이성과의 성숙한 성관계 등의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관계에 관여하는 단계이다. 둘째, 유사친밀감(Pseudointimate)의 단계로서 지속적인 관계에 관여는 하지만, 협동성, 근접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 가장 친한 이성과의 성숙한 성관계 등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이다. 셋째, Preintimate(前친밀감)의 단계로서 협동성, 근접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 가장 친한 이성과의 성숙한 성관계 등의 기준에는 적당하나, 어떤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는 상태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다. 넷째, 혼미(Merger)

의 단계로서 근접성, 상호성은 있으나 개인적 자율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계에 관여를 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고정화된 관계(Stereotyped Relationships)로서 근접성, 협동성, 상호성, 개인적 자율성 등이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비교적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 많은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여섯째, 고립(Isolate)의 단계로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이 사회적으로 내몰린 상태이다.

이처럼 친밀감(intimacy)의 상태는 몇 가지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친밀감(intimate) 결속의 상태가 곧 친밀감 형성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친밀감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영역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인 협동성(cooperativeness)과,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노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열어 놓는 능력인 개방성(openness), 대인 관계에서 독립된 가치지지와 자기조절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능력인 개인적 자율성,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 근접성(closeness)을 들 수가 있다.

Holt 와 Rempel(1988)는 개인의 친밀감 발달 단계를 사정할 수 있는 척도를 고안하는 연구를 통해 성숙한 친밀감의 영역을 9가지로 나누었다. 즉 인정, 육체적 친근감, 개방된 의사소통(상호간의 자아개방), 위험 감수하기, 개입, 개인으로 존중하기, 역할의 완화, 및 중단하기, 신뢰, 책임 등의 요소가 친밀감을 구성한다고 하였고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방법은 인간 상호간의 신뢰에 있다고 하였다(백보령, 1994, 재인용).

부부친밀감 연구의 한 측면에서는 Schaefer 와 Olson(1981)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친밀감척도(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 : PAIR)를 개발하였다. 그는 친밀감의 하위영역으로, 정의적, 지적, 성적, 오락적, 정신적, 미적 요소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Waring(1984)은 임상현장에서 임상적 목적으로 부부친밀감 척도인 웨어링척도 (Waring Intimacy Questionnaire : WIQ)를 개발하였는데 이후 학술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웨어링 친밀감척도(WIQ)는 친밀감을 8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었는데, 애정, 표현성, 응집, 양립성, 성, 갈등해소, 자율성, 정체감이 그것이다(김미라, 2001, 재인용).

Stevens 와 L'abate(1984)는 상처공유척도(Sharing of Hurt scale : SOH)를 개발하였는데 심리, 정서적 고통을 상대방과 나누는 정도를 강조하며 상처받은 마음, 취약성, 갈등해소, 육체적 친밀감, 부족함, 개인적 가치의 공유도를 측정하고 있다. 갈등해소, 육체적 친밀감을 제외한 상처받은 마음, 취약성, 부족함, 개인적인 가치의 공유는 친밀감 개념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이 개발한 부부 친밀감 척도에는 친밀감 문제, 합의, 개방성, 애정, 헌신이 포함되는데 이 척도가 다른 척도와 구별되는 것은 하위영역구성이 아니라 부부간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점과 질문하고 있는 문항 하나하나가 다른 척도들에 비해 부부친밀감의 핵심적인 요소인 상호공유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친밀감의 속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김혜정, 2001, 재인용).

Derlega(1984)는 친밀감이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을 토대로 하면서 단지 행동적 친밀감을 성적 친밀감으로 대체하였다. 인지적 친밀감은 상대방에 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정서적 친밀감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이며 상호공유적 친밀감은 심리 정서적으로 자기노출의 정도를 서로가 인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행동적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스킨십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친밀감의 차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 Clark 와 Reis (1998)는 대인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친밀감 등이 친밀감의 다면적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친밀감의 개념은 인간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독특한 측면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것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성적 요소, 상호공유성 요소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즉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친밀감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임미영(2002)이 분류한 네 가지 요소인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상호공유적요소를 친밀감의 하위영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개인간의 유대와 친밀감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경험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만남에 따라 점차로 발전하며, 이러한 개인간의 교환은 표면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부위로부터 점차 자아의 깊은 부분으로 진전된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성질이나 상황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변화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서로 협력하여 사회활동을 영위해 나간다. 또한 인간은 의사소통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로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교육하고 학습함으로써 즐거움을 주고 받으며, 설득하고 합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즉 의사소통은 Sherman(197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게 하며, 새로운 구성원을 교육시키며, 즐거움을 주며 서로 설득하고 통제해서 합의를 얻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Kennedy(1971)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순조롭게 발달시키려면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감정의 지지를 보내며 자녀의

능력이나 독창성을 인정해주고 부모 스스로도 자기태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신의정(1995)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적으며,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Stone(1973)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란 양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Newman 과 Newman(1975)은 친밀감이란 개인적 정체감 확립 후에 생기며, 상호감정이입(mutual empathy)과 상호욕구조정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친밀감 확립의 가능성은 각 개인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런 자신감은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립되어 가는데, 의사소통이 바로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미라(2001)에 따르면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구성요인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분화수준등으로 이들 요인이 높을수록 친밀감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상호회피적 의사소통보다 친밀감을 더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Foley(1974)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지지, 긍정적,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1988, 재인용).

Boy 와 Roach(1977)는 부부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결혼생활의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Hawkins 와 Ray(1980)는 현대에 있어서 부부간의 감정적인 대화는 결혼의 친밀감을 높이는 핵심적 차원임을 말하고 있다(김혜정, 2001, 재인용).

Olson, Sprenkle 그리고 Russell(1979)은 의사소통이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

성과 적응성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며 자녀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미라(2001)는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부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 존중감, 자아분화수준, 자아정체감,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가치관의 일치도가 친밀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부의 친밀감이 높으며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ennedy(1992)는 성공적인 가족관계의 요소로서 상호간의 높은 친밀감, 부모들이 자신들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 자녀 자신들이 부모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 등 네 가지 요소를 지적한 것에서 보듯이, 친밀감은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정서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가치관의 일치정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감정적 결속 등이 부모 관계의 친밀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의순, 1990).

또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반항-공격적, 독단-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고, 사교-우호적,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노출적 대인관계성향이 높게 나타나(주소영, 1995) 의사소통유형이 친밀감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친밀감 형성을 위한 전략 중 또 한 가지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 있다. Pearce 와 Sharp(1973)는 자기노출이란 화자(話者)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알리는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Cozby(1973)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

다. Berger(1980)는 자기노출은 노출하는 사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앞으로는 상호작용에서 보상과 대가가 얼마나 따를 것인가를 예언해 주며, 유사성, 역량, 신뢰성의 관점에서 노출자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Gilbert(1973)는 이와 같은 자기노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건강한 자아, 몰입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밀감을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 상호인정(mutual confirm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친밀한 정도에 따라 자기노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이 기능적이 되거나 역기능적이 된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ltman, Taylor(1973) 그리고 Duck(1984) 등도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과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없으며, 관계가 발전하려면 그 아는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친밀감 형성을 촉진시켜 주는 의사소통 전략에는 관심기울이기, 자신의 느낌 보고, 피이드백 주고받기, 인정반응 및 자기노출 등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이외에도 Argyle과 Dean(1982)은 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상호간의 거리, 시선의 접촉, 몸기대기, 미소 짓기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동은 대인 상호간의 친밀감을 나타내 주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Patterson, 1976). 이형득(1982)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보고 한쪽 편의 개선은 곧 다른 편의 개선을 초래하며 인간관계발달에 활용될 의사소통의 기법 중 다섯 가지 기초적 기법 즉 관심기울이기, 의사확인, 지각확인, 자신의 느낌 보고, 피이드백 주고받기를 친밀감 형성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Kathleen 와 Galvin(1982) 등은 관계표현수단 즉 애정과 관심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행동 중 인정(confirmation)과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 친밀감 형성을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인정(confirmation)하는 메시지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잘 들었음을 알리고, 상대방의 자아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영시켜주며, 상대방과 기꺼이 관계를 갖고자 함을 표하는 것 등이다. 친밀한 관계발달에 있어서 이러한 인정(confirmation)이 갖는 역할은 크다. 그것은 인정행동이 보상으로 여겨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유발한다면 그 결과로 서로 보상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노출의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친밀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과 친밀감은 이론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 친밀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보고 된 바가 매우 드무나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관계(김혜정, 2001)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친밀감이 낮고, 상호 존중형이나 타인 지향형과 같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부 친밀감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그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 그에 따라 의사소통유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의 성장발달특징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학교급별 성별 분포는 <표 III-1>와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학교급별 성별 분포

성별 학교급별	남자	여자	전체
초등학교	61	63	124
중학교	73	60	133
고등학교	61	96	157
전체	195	219	414

2.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하게 되는 도구 중 설문지의 제 1부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고, 제 2 부는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로 되어있다. 자녀의 성장발달과정에 따라 부모와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그에 따른 친밀감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교급별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 1부는 의사소통유형의 하위요인인 개방형, 폐쇄형을 요인으로 문항을 구성하

였고 2부는 친밀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상호공유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을 요인으로 하여 문항구성을 하였다.

1) 의사소통유형 검사

Hawkins(1977)는 언어화의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양식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Barnes 와 Olson(1982)는 순환모델(circomplex model)에 기초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PAC)를 개방형 의사소통(open in family communication)과 폐쇄형 의사소통(closed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 분류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Barnes 와 Olson(1982)이 제작하고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표 III-2>와 같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검사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6, 8, 11, 12, 14, 15, 16, 19번에 역산문항이 있다.

<표 III-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검사지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개방형 의사소통	1,3,5,7,9,11,13,15,17,19	10
폐쇄형 의사소통	2,4,6,8,10,12,14,16,18,20	10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이고 폐쇄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검사지의 신뢰도계수는 <표 III-3>와 같

다.

<표 III-3>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

변인	부모	하위변인	Cronbach's Alpha
의사소통유형	아버지	개방형	.736
		폐쇄형	.756
	어머니	개방형	.715
		폐쇄형	.751

2) 친밀감 검사

친밀감 측정 검사는 Alexis K. Walker 와 Linda Thompson(1983)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임미영(2002)이 재구성한 친밀감 척도를 인지적, 정서적, 상호공유적, 행동적 친밀감으로 <표 III-4>와 같이 하위요인이 구성되고 있다.

<표 III-4> 친밀감 검사지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정서적 친밀감	1, 4, 5, 11, 15	5
인지적 친밀감	7, 9, 12, 14, 16	5
상호공유적 친밀감	2, 3, 8, 10, 13	5
행동적 친밀감	6	1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

변인	부모	하위변인	Cronbach's Alpha
친밀감	아버지	정서적 친밀감	.823
		인지적 친밀감	.803
		상호공유형 친밀감	.857
		전체	.939
	어머니	정서적 친밀감	.846
		인지적 친밀감	.805
		상호공유형 친밀감	.866
		전체	.940

3. 자료처리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가설검증하였고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Tukey의 다중비교(TMC : Tukey's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이는 종속표본 t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님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하여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alpha = .05$ 이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성별, 학교급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님의 의사소통유형인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F검정)을 통해 가설 검정하였다.

가설 1.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표 IV-1>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의사소통유형	성별	<i>n</i>	<i>M</i>	<i>SD</i>	<i>t</i>
개방형	남	195	3.23	.59	1.82
	여	219	3.12	.65	
폐쇄형	남	195	2.86	.60	-1.55
	여	219	2.95	.64	

<표 IV-1>에 따르면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아버지가 ($M=3.23$), 여학생의 아버지보다($M=3.12$) 더욱 개방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또한 폐쇄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아버지(M=2.86)보다 여학생의 아버지(M=2.95)가 더욱 폐쇄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IV- 2>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성별		<i>n</i>	<i>M</i>	<i>SD</i>	<i>t</i>
개방형	남	195	3.43	.58	2.70**
	여	219	3.59	.62	
폐쇄형	남	195	2.70	.57	-2.20*
	여	219	2.57	.66	

* $p < .05$ ** $p < .01$

<표 IV-2>에 의하면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어머니(M=3.43)보다 여학생의 어머니(M=3.59)가 더욱 개방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70$, $p < .01$), 폐쇄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어머니(M=2.70)가 여학생의 어머니(M=2.57)보다 더욱 폐쇄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0$, $p < .05$).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성별간 지각차이가 없는데 비하여 어머니의 경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녀와의 대화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많기 때문이며 특히 딸과의 대화가 개방적인 것은 같은 여성끼리 공통된 사고, 가치, 관심 부분이 많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며 아들과의 의사소통형태가 폐쇄적인 것은 딸보다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큼에 따라 의사소통의 내용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설 2.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표 IV-3>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학교급별		<i>n</i>	<i>M</i>	<i>SD</i>	TMC	F
개방형	초등학교	124	3.35	.63	b	11.87**
	중학교	133	3.22	.59	b	
	고등학교	157	3.00	.62	a	
폐쇄형	초등학교	124	2.68	.64	a	17.87**
	중학교	133	2.88	.57	b	
	고등학교	157	3.11	.59	c	

** $p < .01$

<표 IV-3>에 의하면,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M=3.35$, 중학교 $M=3.22$, 고등학교 $M=3.00$ 로서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폐쇄형 의사소통유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M=2.68$, 중학교 $M=2.88$, 고등학교 $M=3.11$ 로서 학년이 올라갈 수록 폐쇄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학교현실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습량과 중압감이 부모·자녀간 대화에 영향을 미쳐 무거운 가정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IV-4> 학교급별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

학교급별		<i>n</i>	<i>M</i>	<i>SD</i>	TMC	F
개방 형	초등학교	124	3.64	.64	b	4.03*
	중학교	133	3.47	.55	a	
	고등학교	157	3.46	.60	a	
폐쇄 형	초등학교	124	2.45	.62	a	8.05**
	중학교	133	2.68	.59	b	
	고등학교	157	2.74	.62	b	

* $p < .05$ ** $p < .01$

<표 IV-4>에서 보듯이 개방형의사소통형태의 경우 초등학교 $M=3.64$, 중학교 $M=3.47$, 고등학교 $M=3.46$ 로, 폐쇄형의사소통형태의 경우 초등학교 $M=2.45$, 중학교 $M=2.68$, 고등학교 $M=2.74$ 로서 어머니의 경우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에게 거는 기대로 인하여 자녀의 욕구와 상반되는 요구를 무리하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자녀의 친밀감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인식차이를 독립 표본 t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F검정)을 통해 가설 검정하였다.

가설 3.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해 친밀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한 결과 <표 IV-5>, <표 IV-5>와 같다.

<표 IV-5>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친밀감	성별	<i>n</i>	<i>M</i>	<i>SD</i>	<i>t</i>
정서적 친밀감	남자	195	3.89	.82	1.43
	여자	219	3.77	.94	
인지적 친밀감	남자	195	3.67	.77	.01
	여자	219	3.67	.84	
행동적 친밀감	남자	195	3.78	1.06	-.21
	여자	219	3.81	1.14	
상호공유적 친밀감	남자	195	3.62	.82	1.08
	여자	219	3.53	.90	
전체	남자	195	3.74	.77	.60
	여자	219	3.69	.85	

먼저 가설 3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5>에서 전체적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에 대해서는 여자(M=3.69)보다 남자(M=3.74)가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보살핌과 관련하여 아들, 딸 구별없이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IV-6> 성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i>n</i>	<i>M</i>	<i>SD</i>	<i>t</i>
정서적 친밀감	남자	195	4.06	.84	-1.74
	여자	219	4.20	.85	
인지적 친밀감	남자	195	3.85	.78	-1.23
	여자	219	3.95	.78	
행동적 친밀감	남자	195	4.08	.99	-1.28
	여자	219	4.20	.97	
상호공유적 친밀감	남자	195	3.82	.83	-1.66
	여자	219	3.96	.87	
전체	남자	195	3.95	.77	-1.66
	여자	219	4.08	.77	

<표 IV-6>에서 전체적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에 대해서는 남자(M=3.95)보다 여자(M=4.08)가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도 같은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남녀구분이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가설 4.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해 친밀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한 결과 <표 IV-7>, <표 IV-8>와 같다

<표 IV-7>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학교급별		<i>n</i>	<i>M</i>	<i>SD</i>	TMC	F
정서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09	.83	b	15.85**
	중학교	133	3.92	.85	b	
	고등학교	157	3.53	.88	a	
인지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3.85	.77	b	10.41**
	중학교	133	3.76	.78	b	
	고등학교	157	3.45	.80	a	
행동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11	1.03	b	16.70**
	중학교	133	3.95	1.08	b	
	고등학교	157	3.42	1.07	a	
상호공유 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3.74	.89	b	8.58**
	중학교	133	3.67	.84	b	
	고등학교	157	3.35	.82	a	
전체	초등학교	124	3.95	.76	b	16.58**
	중학교	133	3.82	.79	b	
	고등학교	157	3.44	.80	a	



** p<.01

가설 4에 대한 검정 결과 <표 IV-7>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M=3.95)일 때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M=3.82), 고등학교(M=3.44)로 갈수록 친밀감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고 (F=16.58, p<.01), 각 하위요인별로도 같은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특성상 또래 집단과 접촉의 기회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학교현실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량에 따른 중압감이 부모·자녀에 작용하여 대화의 유형이 지시, 억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의 반작용으로 자녀의 저항이 되풀이되어 무거운 가족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8> 학교급별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차이

학교급별		<i>n</i>	<i>M</i>	<i>SD</i>	TMC	F
정서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40	.72	b	11.25**
	중학교	133	4.13	.84	a	
	고등학교	157	3.93	.89	a	
인지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04	.72	b	4.82**
	중학교	133	3.95	.79	ab	
	고등학교	157	3.76	.81	a	
행동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43	.85	b	13.20**
	중학교	133	4.22	.99	b	
	고등학교	157	3.85	.99	a	
상호공유적 친밀감	초등학교	124	4.06	.81	b	7.37**
	중학교	133	3.98	.83	b	
	고등학교	157	3.70	.87	a	
전체	초등학교	124	4.23	.67	b	11.39**
	중학교	133	4.07	.77	b	
	고등학교	157	3.81	.80	a	



** p<.01

<표 IV-8>에 따르면 전체적인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M=4.23)일 때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M=4.07), 고등학교(M=3.81)로 갈수록 친밀감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고(F=11.39, p<.01), 각 하위요인별로도 같은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특성상 부모 이외의 대상에 더 관심과 접촉의 기회가 많은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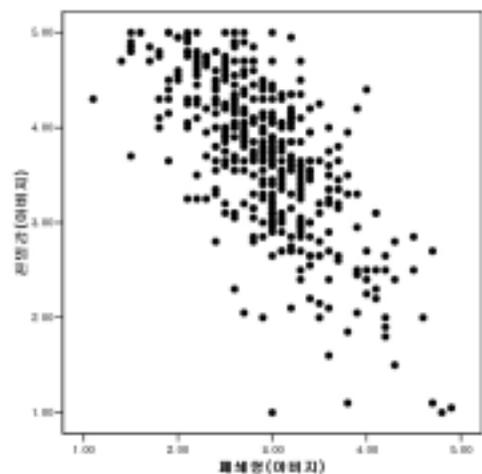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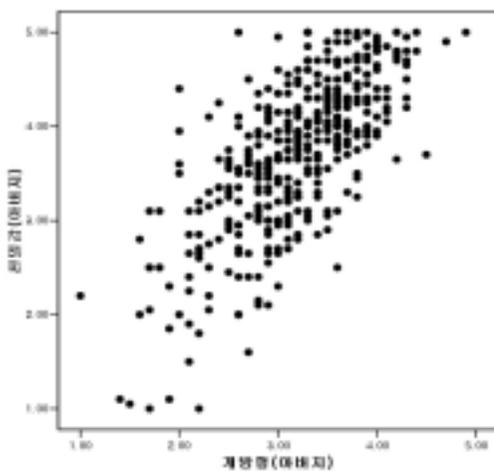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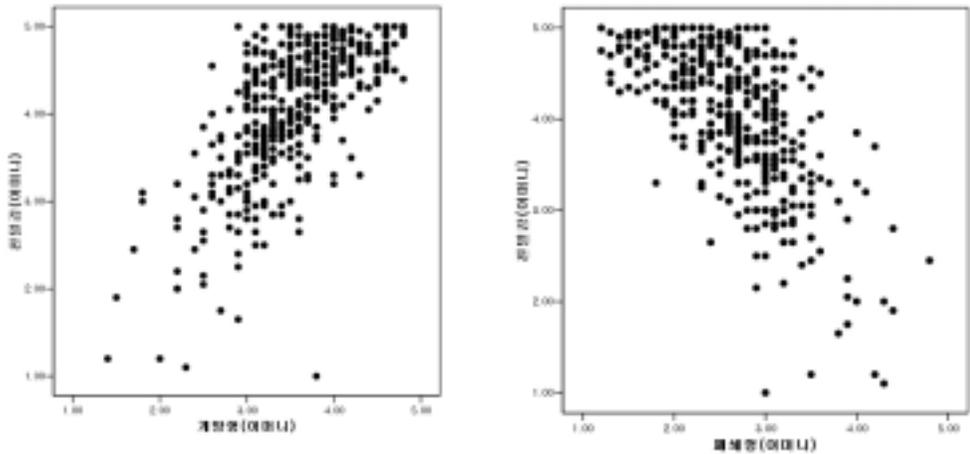
다음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모에 대한 친밀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9> 요인별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구분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 공유적 친밀감	전체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 공유적 친밀감	전체
아버지	개방형	.68**	.68**	.49**	.72**	.71**	.36**	.37**	.32**	.46**	.42**
	폐쇄형	-.64**	-.66**	-.47**	-.71**	-.69**	-.31**	-.35**	-.28**	-.42**	-.38**
어머니	개방형	.38**	.44**	.36**	.47**	.46**	.61**	.61**	.50**	.67**	.67**
	폐쇄형	-.32**	-.39**	-.32**	-.41**	-.40**	-.60**	-.60**	-.48**	-.64**	-.65**

** p<.01





[그림1]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IV-9>과 [그림 1]에 의하면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인 경우 자녀가 느끼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매우 높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매우 낮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방형 $r=.71$, 폐쇄형 $r=-.69$).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개방형 $r=.67$, 폐쇄형 $r=-.65$).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간에는 상당히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5. 자녀의 성별 분석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표 IV-10> 성별 요인별 분석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구분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 공유적 친밀감	전체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 공유적 친밀감	전체	
아버지	개방	남	.64**	.63**	.45**	.66**	.66**	.37**	.39**	.38**	.43**	.44**
		여	.70**	.71**	.52**	.77**	.75**	.38**	.36**	.29**	.50**	.43**
	폐쇄	남	-.59**	-.63**	-.43**	-.67**	-.64**	-.33**	-.40**	-.31**	-.43**	-.41**
		여	-.68**	-.69**	-.51**	-.74**	-.72**	-.32**	-.32**	-.27**	-.42**	-.38**
어머니	개방	남	.40**	.41**	.41**	.48**	.48**	.56**	.57**	.52**	.58**	.62**
		여	.39**	.48**	.33**	.48**	.46**	.64**	.65**	.48**	.73**	.70**
	폐쇄	남	-.29**	-.37**	-.31**	-.44**	-.40**	-.50**	-.50**	-.44**	-.55**	-.56**
		여	-.36**	-.41**	-.33**	-.40**	-.42**	-.67**	-.67**	-.51**	-.71**	-.72**



** p<.01

가설 5에 대해 가설검정을 한 결과 <표 IV-10>에 의하면 아버지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관련성은 남자($r=.66$)보다는 여자($r=.75$)가 더욱 강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은 남자($r=-.64$)보다 여자($r=-.72$)가 부적관련 경향이 더 강해 아버지와 친밀감이 낮아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친밀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관련 정도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p<.01$).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친밀감 관계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개방형 남 $r=.62$, 여 $r=.70$; 폐쇄형 남 $r=-.56$, 여 $r=-.72$).

가설6. 자녀의 연령별 분석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표 IV-11> 학교급별 요인별 분석에 따른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구분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공유적 친밀감	전체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행동적 친밀감	상호공유적 친밀감	전체	
아버지	개방	초	.60**	.61**	.43**	.67**	.66**	.34**	.37**	.30**	.42**	.41**
		중	.71**	.68**	.48**	.74**	.72**	.43**	.36**	.33**	.48**	.45**
		고	.66**	.68**	.46**	.73**	.70**	.24*	.32**	.23**	.41**	.33**
	폐쇄	초	-.56**	-.57**	-.38**	-.68**	-.63**	-.25**	-.34**	-.19*	-.42**	-.35**
		중	-.65**	-.67**	-.47**	-.69**	-.68**	-.35**	-.37**	-.27**	-.37**	-.38**
		고	-.64**	-.69**	-.44**	-.72**	-.69**	-.22**	-.28**	-.23**	-.38**	-.31**
어머니	개방	초	.35**	.45**	.42**	.54**	.51**	.56**	.55**	.55**	.67**	.68**
		중	.41**	.41**	.31**	.41**	.43**	.55**	.54**	.35**	.58**	.56**
		고	.35**	.44**	.33**	.44**	.44**	.687**	.72**	.56**	.73**	.75**
	폐쇄	초	-.21*	-.40**	-.30**	-.45**	-.39**	-.49**	-.53**	-.45**	-.65**	-.61**
		중	-.35**	-.39**	-.28**	-.36**	-.38**	-.57**	-.53**	-.35**	-.58**	-.59**
		고	-.32**	-.34**	-.31**	-.37**	-.37**	-.66**	-.69**	-.48**	-.70**	-.70**

** p<.01

가설 6에 대해 검정을 한 결과 <표 IV-11>에 의하면 먼저 아버지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의 관련성은 초등학교 $r=.66$, 중학교 $r=.72$, 고등학교 $r=.70$ 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r=-.63$, 중학교 $r=-.68$, 고등학교 $r=-.69$ 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와
의 친밀감은 더욱 높은 부적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고 그에 따라 친밀감을 증가시
키지만, 성장함에 따라 폐쇄형 의사소통 형태로 변하고 그에 따라 친밀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머니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관련성은 초등학교 $r=.68$, 중학교 $r=.56$, 고등
학교 $r=.75$ 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폐쇄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r=-.61$, 중학교 $r=-.59$, 고등학교
 $r=-.70$ 로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더욱 높은 부적 상관성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
한 친밀감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개방형 의사소통형
태를 취하고 그에 따라 친밀감을 증가시키지만, 성장함에 따라 폐쇄형 의사
소통 형태로 변하고 그에 따라 친밀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의사소통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자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1.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2.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3.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4.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5. 자녀의 성별 분석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설6. 자녀의 연령별 분석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누고, 두 번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친밀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인지적, 상호공유적, 행동적 친밀감으로 나눈 뒤, 자녀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모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20 문항,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16 문항으로 구성하여 반응하게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w-way ANOVA)을 통하여 가설검정하였으며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Tukey의 다중비교(TMC : Tukey Multiple Comparison)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차이는 종속표본 t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님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간의 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 $\alpha=.05$ 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중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남학생의 어머니(M=3.43)보다 여학생의 어머니(M=3.59)가 더욱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폐쇄형일 경우 남학생의 어머니(M=2.70)가 여학생의 어머니(M=2.57)보다 더욱 폐쇄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급별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는 초등학교(M=3.35), 중학교(M=3.22), 고등학교(M=3.00)로 차이($p<.01$)를 보이며 폐쇄형의 경우 초등학교(M=2.68), 중학교(M=2.88), 고등학교(M=3.11)로 차이($p<.01$)를 보여서 자녀가 어릴 수록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학년이 높아질 수록 폐쇄형의 의사소통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개방형 의사소통 ; 초등학교 M=3.64, 중학교 M=3.47, 고등학교 M=3.46, 폐쇄형 의사소통 ; 초등학교 M=2.45, 중학교 M=2.68, 고등학교 M=2.74).

셋째, 성별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차이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넷째, 학교급별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 차이검정에서 초등학교 M=3.95, 중학교 M=3.82, 고등학교 M=3.4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높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다($F=16.58, p<.01$). 이는 어머니(초등학교 M=4.23, 중학교 M=4.07, 고등학교 M=3.8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F=11.39, p<.01$).

다섯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간의 관계 분석에서 아버지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친밀감과 관련성이 남자($r=.66$)보다는 여자($r=.75$)가 더욱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도 남자($r=-.64$)보다 여자($r=-.72$)가 더욱 부적 상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개방형 의사소통 남자 $r=.62$, 여자 $r=.70$; 폐쇄형 의사소통 남자 $r=-.56$, 여자 $r=-.72$). 이는 딸의 경우 아들보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학교급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간의 관련성 분석에서 아버지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r=.66$, 중학교 $r=.72$, 고등학교 $r=.70$ 로 나타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r=-.63$, 중학교 $r=-.68$, 고등학교 $r=-.69$ 로 더욱 강한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과 친밀감과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 $r=.68$, 중학교 $r=.56$, 고등학교 $r=.75$ 로 정적상관관계를, 폐쇄형 의사소통과 친밀감과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 $r=-.61$, 중학교 $r=-.59$, 고등학교 $r=-.70$ 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다시 말하면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취하는 의사소통유형은 개방적이나 성장할수록 의사소통유형은 폐쇄적으로 변하며 이에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도 낮아지고 있어서 의사소통 유형과 친밀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친밀감과의 관련은 $r=.71$, 폐쇄형일 경우 친밀감과의 관련은 $r=-.69$ 로 나타났으며 ($p<.0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r=.67$, 폐쇄형일 경우 $r=-.65$ 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친밀감은 매우 높아지며, 폐쇄형의 의사소통일 경우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간에는 상당히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친밀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차이를 두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나 여학생의 어머니는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남학생의 어머니는 폐쇄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는 경향이다.

둘째, 자녀가 초등학교일수록 부모는 개방형 의사소통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폐쇄형 의사소통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일수록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부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낮다.

넷째, 의사소통유형과 관련한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정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민감하다. 즉 부모가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욱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섯째, 자녀가 어릴 때 취하는 부모의 의사소통형태는 개방적이거나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의사소통형태는 폐쇄형으로 변하며 이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도 어릴 때는 높다가 성장할수록 낮다.

여섯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형일 경우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친밀감은 매우 높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 부모와의 친밀감이 매우 낮다. 따라서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간에는 상당히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이상의 결론에서 자녀와 변함없는 친밀감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형태를 개방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자녀 대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친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라는 결론에 따라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성장할수록 친밀감이 떨어지는 요인분석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방적 의사소통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과 관련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른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폐쇄형 의사소통유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아버지 관련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간 차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미경(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남희(200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라(2001).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윤희(1989). 부부관계·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진희(1988). 부모 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2001). 부부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박연호(1999). 인간관계론, 서울 : 박영사.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보령(1994).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서병숙(1998). 결혼과 가족, 서울 : 교문사.

- 송성자, 정운자(1994). **경험적가족치료-Satir이론과기법**,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송여옥(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정(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수경(1996). **Satir 가족 치료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상담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유영주(1998).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유점숙(1994). **부부 의사소통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금남(2001), **기혼 딸과 친정 어머니의 친밀감 및 부양의식**,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형득(200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 학지사.
- 이창숙, 유영주(199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권1호.
- 임미영(2002). **가족친밀감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 주소영(1995), **고교생이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차배근(1985).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배영사.

- Altman, I. & Taylor, D. A. (1973). *A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arn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 Berger, Charles R. (1980). *Power and the family, Persuasion : New sirection in theory and research*, Michael Roloff.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 Theoretical stuides toward the sociology of language*, 1, London : Routledge & Kegan Poul.
- Bienvenu. M. J. & McClain, S.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conomics*.
- Boy, L. & Roach(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1*.
- Brene, E.(1964). *Game people play*, N. Y. : Grove press.
- Clark, M. S. & Reis, H. T. (1988). Interpersonal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9.
- Cozby, P.C.(1973). Self-disclosure: A Litera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2.
- Derlerga, V. J. & Chaikin, A. L.(1975). *Sharing Intimac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 Derlerga, V. J.(1984).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N.Y. Academic Press, Inc.
- Erikson, C.W.(1968).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Gibb, J. R.(1961). Defensive Communica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11,

- Galvin, K. & Brommel, B.(1982),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GlenviewIL ; Scott, Foresman and Co.
- Gilbert, Shirley.(1976). *Empirical and Theoretical Extensions of Self-Disclosure, Explora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Gerald Miller, e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Gordon, T.(1975). *PET : Parent Effect 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 Gross, I. H., Grandall, E. W. and Knoll, M. M, (1980). *Managemeng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Hatfield, E. & Derlega, V. J. Ed.(1984). *The Danger of Intimacy,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 H : Academic, Press.
- Haekins, J. S. & Ray, D. W. (1980). Sopos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No.#.*
- Hawkins, J. L. Weisberg, C. and Ray, D. L.(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3).*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Moss, B. & Schwebel, A. (1993). Marital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Vol. 42.*
- Norton, R. W. (1978). Foundation of communicator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
- Newman, B.M. & Newman, P.R.(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Illinois* : The Dorsey Press.

- Nickell, P., Rice, A. S., and Tucker, S. P. (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Y. : John Wiley and sons Inc.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 Orlofsky, J. L.. and Ginsberg, S. D.(1981), *Intimacy status : relationship to affect cognigion*. Adolescence, 16.
- Orlofsky, J. L. et al.(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7, No. 2.
- Orlofsky, K. L.(1976). Intimacy status: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perceptio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5.
- Pearce, W. Barnett, & Stewart M. S, (1973)Self-disclosing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3.
- Pruitt.J.A., Kappius, R., and Gormmun, P.W.(1982). Bulimia and fear of intimacy, *Joirnal of clinical Psychology*.
- Reise,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Duck, S. W.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N.Y. : John Wiley and Sons, Ltd.
- Robertson, J.(1977), Grandmotherhood, A study of role Con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aefer. M. & Olson, D. (1981). Assesment of Intimacy :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7.

- Schiedel, don G. & Marcia, J. E.(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s isolatio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2.
- Schramm, W. (1971).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n Wilbur schramm and Donalds Roberts (Ed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3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erman, R. C. & Godson, J. L.(1975). The Intimacy of Discussion Topics: A Comparison of three scaling methods, *Bulleton of the psychonomic society*, 6.
- Stome, W. F.(1973). Patterns of conformity in couples varying in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
- Waring, E. M., Schaefer, B. & Fry, R (1994) The influence of therapeutic, self-disclosure on perceived marital intimac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0(2).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
- Whitbourne, S. K. and Weinstock, S.(1979). *Adult Development: The Differenti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Types and Intimacy

Song, Sang-Hong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how intimate the children feel according to their parents' communication types. The subjects are as follows :

1. Are there differences among Parents' Communication Types which their children perceive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2.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intimacy that they feel toward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childr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3. Are there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Types which their children perceive and the intimacy that they fe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414 students -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2nd graders in middle schools, and 2nd graders in high schools - were selected, and the test was held on Parents' Communication Types which the children perceive and the intimacy that they feel.

The tools used in this research are the questionnaires: one copy is made up of items which have 'open type' and 'close type' as subordinate primary elements of communication, and two copies consist of items which have 'human knowledge', 'emotion', 'co-ownership', 'behavioral intimacy' as subordinate primary elements of intim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First, among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according to sexes, fathers show no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types with their children; however, in case of mothers' communication types, girls' mothers show more open communication type, and boys' mothers more close one .

Second, in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the children feel according to the grades of schools, the parents have more open communication type when the children are in the elementary school; they have more close one according as their children become high schoolers.

Third, as for the intimacy the children feel according to the ages, elementary schoolers feel more intimacy, but they feel less intimacy as they grow older.

Fourth, girls are more sensitive than boys in the intimacy the children feel according to their sexes in relation to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Fif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communication types and the intimacy according to the grades, the parents have more open communication type when the children are younger, and they feel more intimacy, which shows positive relations.

And the parents have more close communication type according as the children grow older, and they feel less intimacy, which shows negative relations.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types and intimacy, the children feel more intimacy if their parents have more open communication type; the children feel less intimacy if they have more close one.

The conclusion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s have open communication type when the children are young, but they show close one as the grades become higher.

Seco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children feel more intimacy when young, but they feel less intimacy as they grow up.

Third, the children feel more intimacy toward their parents when they have open one; they feel much less intimacy when they have close one.

Fourth, they have open communication type when their children are young, and the children feel more intimacy toward their parents; they have close type as their children grow older, and the children feel less intimacy. In conclusion,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arents' communication types and intimacy.

부록 : 석사학위논문 설문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배경변인 검사지
의사소통유형검사지
친밀감 검사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송 상 홍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안에 √표하여 주십시오.

■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

② 여자 ()

■ 당신의 학년은?

① 초등학교6학년 ()

② 중학교2학년 ()

③ 고등학교2학년 ()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에 대해 √표를 하여 주세요.

번호	내용(홀수번호 : 개방형, 짝수번호 : 폐쇄형)	문항분 석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어쩌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2	때때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3	아버지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4	때때로 나는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5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6	아버지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아신다.	역문항					
7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형태에 만족한다.						
8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의논한다.	역문항					
9	나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10	나(아버지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아버지께 종종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11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역문항					
12	나는 아버지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다.	역문항					
13	아버지께서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4	아버지께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역문항					
15	나에게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가 있다.	역문항					
16	나는 아버지와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역문항					
17	나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18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19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신다.	역문항					
20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21	나는 어머니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22	때때로 나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23	어머니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신다.						
24	때때로 나는 어머니께 원하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렵다.						
25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						
26	어머니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아신다.	역문항					
27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형태에 만족한다.						
28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의논한다.	역문항					
29	나는 어머니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30	나(어머니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머니께 종종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31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편이다.	역문항					
32	나는 어머니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할 때가 있다.	역문항					
33	어머니께서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34	어머니께서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역문항					
35	나에게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꺼리는 화제가 있다.	역문항					
36	나는 어머니와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역문항					
37	나는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38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39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화를 내실 때 모욕감을 주신다.	역문항					
40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어머니께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평소 부모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 √표를 하여 주세요.

번호	내용	문항분 석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어쩌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 령 다	그 않 다
1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정서						
2	아버지와 나는 서로 솔직하게 대한다.	상호						
3	아버지와 나는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호						
4	나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정서						
5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정서						
6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행동						
7	아버지는 나의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인지						
8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먼저 염려해준다.	상호						
9	아버지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인지						
10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믿는다.	상호						
11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서						
12	아버지는 내가 돌봐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인지						
13	아버지와 나는 서로 의지가 된다.	상호						
14	아버지는 항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	인지						
15	나의 생애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서						
16	아버지는 나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해주려 하신다.	인지						
17	나는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정서						
18	어머니와 나는 서로 솔직하게 대한다.	상호						
19	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호						
20	나는 어머니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정서						
21	나는 어머니를 존경한다.	정서						
22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	행동						
23	어머니는 나의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인지						
24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먼저 염려해준다.	상호						
25	어머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인지						
26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믿는다.	상호						
27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서						
28	어머니는 내가 돌봐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인지						
29	어머니와 나는 서로 의지가 된다.	상호						
30	어머니는 항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	인지						
31	나의 생애에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서						
32	어머니는 나의 기분을 항상 좋게 해주려 하신다.	인지						